



안성지부, 공동방역사업 활발히 전개

-전체 양돈농가 중 95% 참여, 콜레라 박멸 최우선-

- 홍 보 부 -

본 회 안성지부(지부장 : 이광우)의 공동방역 사업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안성지부 공동방역사업단은 안성 지역의 주요 돼지 전염성 질병을 예방 또는 박멸하여 양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가축 질병 피해 : 생산액의 약 20%)을 막아, 생산비 절감에 의한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양돈산업을 지속적인 수출 산업으로 이끌고, 국내 소비 시장에서 외국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11월 조직된 후 관내 229 양돈농가 중 217명이 참여해 돼지 전염성 질병을 박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돼지 콜레라를 조기박멸하고,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전염성 설사병 등 주요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을 위해 지난해에 안성군내 전체 양돈장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을 100%로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

이고 있다.

안성 공동방역사업단은 백신접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60여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팀이 직접 백신접종을 실시해준다. 지난해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 3개 농가에서 항체 양성돈을 적발하고, 양성돈 도태 및 전두수 백신을 실시해 발병 3개월만에 오제스키병 음성을 확인했다.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5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광우 안성 지부장은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나 회원들의 희비만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관련 기구의 축소로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인력이 부족하고, 본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업무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또 백신공급방법 개선, 사업실적 평가에 의한 중점 지원제 도입 등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돈**